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아고 닳아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문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印地安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금세기 마지막 용마의 밤

12·20 '감동'예약

“서면 롯데호텔서 우정의 축배를”

“새 천년을 향해 역량을 결집하자!”
금세기 마지막 ‘99용마의 밤’ 축제가 12월20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천3백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소영 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 의원장)이 주재할 이날 축제는 정 본

부회장의 인사, 권오현 고문(1회)의 격려사, 김성규 재경회장(11회)의 축사에 이어 유공동문 표창, 제31회 기별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제24회와 준우승한 제38회에 각각 우승기 및 준우승컵을 수여한다.

정소영 본부회장은 “오늘의 축제가 21세기를 대비한 저력을 과시하

는 계기가 되고 빛나는 전통을 살리기 위해 대화합과 결속력을 발휘하자”는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용마의 밤’축제는 기념식에 이어 축배를 들어 서로 건승을 빌며 정담을 통해 우정을 재확인하게 된다.

여흥은 실내악단의 연주 속에 초청 남녀가수의 노래와 춤이 흥을 돋우고 동기회별 대표가수들이 출연, 열창경연을 벌인다. 고급 칼라 TV 등 수십점의 행운상 추첨도 있다.



10월17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재경동창회 '99정기총회. 원내는 김성규 신임회장.

김성규(11회) 제10대 회장 선임

재경동창회 '99 정기총회

동문(23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나 우천관계로 행운상만 추첨하고 끝마쳤다.

새 집행부 운영목표 “모이자! 뭉치자! 빛내자!”

재경동창회 '99정기총회가 10월17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10대 회장에 김성규 동문(11회·전 경남모직 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안우만 회장(10회·전 법무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총회에서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중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용마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동문·가족 모두는 어느 때보다도 화합하고 결속해 역량을 과시하자”고 말했다.

김영해 사무국장(23회)이 사회를 맡은 총회는 이어 정동식 재경명예회장(1회) 격려사, 국회의원인 손세일 동문(8회) 축사, 이강우 수석부회장(11회) 전회의록 낭독, 안우만 회장 인사말 및 결산보고, 정총 재경수석 감사 감사보고, 임원개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규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 천년을 대비한 투철한 각오가 절

실히 요구된다”며 “모이자! 뭉치자! 빛내자!”를 실천 화두로 동창회의 문턱을 낮추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동창회가 동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한일합섬·국제상사·한화개발을 거쳐 경남모직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본부동창회 부회장·경상회 회장·용마산악회 회장 등을 맡았다.

한편 안 회장은 앞서 제31회 기별야구대회(4.25~5.30)에서 우승한 제39회 동기회에 우승기와 우승컵을 수여했다.

제24회와 제23회는 각각 준우승상과 감투상을 받았다. 또 MVP에 오른 황준호 동문(39회)등 14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입상자 명단 6면에).

특히 김경희 고문(9회)과 최수일 전 사무국장(17회)이 감사패와 공로패를, 정기조 중앙대감독(29회)이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이날 2부 야유회 여흥은 이재동

제24회 ‘왕중왕’

준우승 제38회·MVP 장한중(24회) 차지

제31회 기별야구대회

최다참가상 32회

제6, 14, 15, 16회
다수입장상 받아

제24회가 '99기별대항야구대회(제31회 부산시리즈)에서 ‘왕중왕’에 등극. 대회 통산 6관왕의 영광을 누렸다.

제24회는 11월6일 오후 경남고구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결승전에서 다크호스 제38회를 맞아 장단 14 안타를 쏘아 10득점, 핸디 7점을 포함 17-14로 승리, 패권을 쥔채였다.

제24회는 이날 3회초 선두타자 김

학주와 황성동 정기준 등의 안타로 2점을 선취, 패조의 출발을 했다. 이어 5회초 변정규 오기봉 이종구 강영장의 연속 안타로 5점, 6회초 2점, 7회초 1점을 더 보태 10득점 했다.

반격을 감행한 제38회는 2회말 1점, 4회말 노재완의 3루타 등으로 4점, 5회 1점, 6회말 대거 6점, 7회말 2점을 얻어 14득점 했으나 핸디 7점에 눌러 준우승에 그쳤다.

준우승에 머문 제38회는 10월 31일 4강전에서 제33회에 13-12 극적 승리, 결승에 올랐고 제24회는 지난해 우승팀인 제22회에 10-4 대승, 결승행에 합류했다. 우승 등 단채상은 오는 12월 20일 용마의 밤 축제에서 시상한다.

이날 최우수선수상은 장한중 동문

(24회)이 수상하는 등 30명이 개인상을 받았다(입상자 명단 6면에).

대회장인 정소영 본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대회부터는 기별야구대회가 우리 동창회의 신나는 행사 중에서도 가장 신나는 행사로 다시 바로 세우자”며 “동문·가족 여러분이 기별야구 중흥의 건원차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회 입장식은 10월 10일 오전 10시 경남고구장에서 열린 제32회가 30여명의 가족과 함께 무려 70여명이나 참석, 최다참가상(상금 20만원)의 영광을 안았다.

또 가족동반 30~40여명씩 참석한 제6, 14, 15, 16회가 각각 다수입장상(상금 10만원)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 첫 경기를 치른 제14회는 ‘영원한 맞수’ 제15회를 맞아 팽팽한 공수를 펼쳤으나 힘부족으로 6-7 석패했다.

그러나 두 팀은 경기 전 운동장 스탠드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모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김영삼 전대통령 모교방문 “환영물결”

김영삼 전대통령(3회·본부고문)은 10월15일 오후 퇴임 후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 후배들을 격려했다.

16일 부산민주공원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온 김 전대통령은 이날 모교에 들려 김성찬 교장(12회) 및 교직원과 재학생, 정소영 본부동창회 회장과 다수 임원, 동문 등 1천 8백여명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김 전대통령은 이날 체육관에서 20여분에 걸친 특강을 통해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하며, 거짓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김 전대통령은 이어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친필 휘호를 모교에 방문기념으로 선물하고 현관에서 교직원과 동창회 임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11월6일 경남고구장에서 열린 제31회 기별야구대회 결승전 경기.

시 평

김 중 하

제11회·부산대 교수·문학평론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알고자 함은 결코 과거의 영화나 선조들의 위업을 빌미 삼아 오늘의 초라함을 보상받으려 함에서가 아니다. 못난이는 때로 선조를 팔아 쇠락한 오늘을 변명하려 하고 내일조차 설계하지 못하고 좌절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고구함은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의 영광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짐하고 그래서 박차 나아가 내일의 금자탑을 쌓아가려 함이다.

60년 가까운 우리 경남중고등학교의 역사.

20세기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그 빛나는 역사성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주춧돌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음을 우리는 자부한다. 학문이면 학자로서, 정치면 정치가로서, 경제면 경제인으로서, 교육면 교육자로서 우리의 선배들이 맡아 왔던 역사적 사명과 그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과 내일에 우리 경남중고 동문들이 맡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얼마나 많으며 막중한 것인가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항상 역사적 변혁기의 중심에 서 있었으므로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맡아야 했던 책무로 해서 빚어졌던 비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판이 두려워 책무를 방기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역사적 소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함이고 의기를 상실한 소인배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한 오늘, 우리는 새삼스럽게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의 큰 설계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경남중고 동문은 형제요 한 가문 큰 집안이다. 가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번잡한 일들도 많게 마련이다. 빛나는 일로 잔치가 벌어지면 모이는 이들도 많고 만나는 이들도 많다. 흥겨워하면서 빠진 이들이 있어도 잠깐 잊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와 어려움을 같이 하고 위로하며 새 힘을 북돋우는 이들이 적고, 왔어야 할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섭섭하다. 기쁜 일에 빠지는 것은 흥이 아니지만 고통에 빠지는 것

은 가문의 일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제까지를 돌아보면, 좋은 일에는 곁은 일에는 동문들의 참여가 흡족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무한 국제 경쟁시대에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절대적인 것이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찌 그러하단가.

거목은 주변의 키 작은 나무가 있어 우뚝하고, 높은 산은 그 아래 머리 조아리는 작은 봉우리가 있어 더 높을 하며, 큰 강은 많은 냇강을 거느려 유유히 흐르는 법이다. 울울창창한 숲은 한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목과 애송이를 키우는 스러진 등걸로 있어야 하고 또 힘차게 자라는 중치 나무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홀로 선 나무는 높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큰 나무가 아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숲이 있어야 하고 짐승을 막아주는 늑대로 있어야 한다.

현대는 한 사람의 뛰어난 인재만으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 크고 다른 능력을 가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했을 때만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이 되고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분야에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큰 일하는 사람은 없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우뚝해

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옴으로 그 분야의, 집안의 사람들이 감싸고 도와준 옴덕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

새 천년 대비한 준비를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새로운 내일을 건설하고 '집 안'에서 감싸고 도와준 옴덕을 잊지 않아야

우리 경남중고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은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지혜롭고 더욱 날래다.' 더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지혜가 생겨나고 더 날래질 것은 정한 이치다.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짐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 발전의 중심에서야 할 우리 경남중고 동문 일가는 그의 전공 분야에서 맡아야 할 책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나아가 역사적 소명을 무겁게 인식하며 각 분야에서 각자 가진 개인적 능력과 자질을 갈고 닦을 것은 물론 그 힘을 모아 새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여 우뚝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천신일 (15회) 대한레슬링협회장

金胍 캐는 '세계적 사령탑'

천신일 동문(15회·재경부회장·세종 회장·사진)은 97년 대한레슬링협회장을 맡은 이래 지난 3년간 우리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무려 6개의 금메달을 획득케 하는 데 성원을 아끼지 않은 사령탑이다.



천 동문은 "한국 레슬링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 96년까지 거둔 금메달 5개를 앞지르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 하고 동시 세계 최강의 반석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선수들의 집념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의 결과"라고 말했다.

천 동문은 9월23~2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45회 그레코로만형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금 2, 은 1개를 획득, 러시아 쿠바와 함께 메달 획득 공동 1위와 4체급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

또 10월7~10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제34회 자유형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1, 은1,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권 4체급을 획득토록 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사가 겹쳤다. 천 동문의 현지 지도력과 부단한 성원에 의해 한국 대표단이 금메달 이상으로 값진 모범플레이상(The Fair-play Cup)을 받았고, 본인은 국제레슬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국제레슬링연맹 총회에서 금장(金章)을 수상했다.

"역대 최고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레슬링대표단은 내년 시드니

재임 3년 사이 금메달 6개 거양

국가대표팀 페어플레이상

지도력 평가 국제연맹 金章 수상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따라서 배전의 지원으로 세계 최강자로 만들겠습니다." 천 동문의 야망이다.

천 동문이 대한레슬링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우리 선수들이 거양한 성적은 다음과 같다.

△98년 세계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금2, 동2와 자유형 은1.

△98년 12월 아시안게임 금7, 동2(4연패)

△99년 5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제페, △99년 7월 주니어 자유형 세계선수권 최초의 금메달(최권섭)

△99 세계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금2, 은1와 자유형 금1, 동1(역대 최고 성적).

박영무 (15회) 창원지법원장 발탁

박영무 동문(15회·사진)은 10월 11일 창원지법원장에 부임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제25대 경남선관위 원장에 선임됐다.

"박으로는 성실·친절과 함께 사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안으로는 '공정·공평한 법원'의 위상을 세우도

록 하겠다"는 말로 박 동문은 취임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동문은 재임 중 환경사범의 경우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며, 내년 총선을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 고



해운대지역 10월 월례회 해운대지역동창회(회장 박동렬·8회)는 10월22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구 로얄 킹덤 호텔 연회실에서 동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본부 사무국 최득호 국장(11회)과 김병수 총무(22회)도 참석, 본부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제22회 등산대회 등 활동 왕성

제22회동기회는 클럽별 지역별 행사가 활발해져 조직활동화는 물론 동문·가족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들산우회(산악회)는 9월19일 경남 원동 천대산에서 장영근 회장 주재로 등반대회를 열었다.

산우회 신입회장 최일룡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 15명은 하산 후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일룡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행은 매월 일요일마다 하되 한번은 먼 곳을 타고 나머지 일요일은 가까운 산을 정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 회장과 조승일 총무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입총무는 신중수 동문이 임명됐다.

골프회 새 회장 김만성

또 둘들골프회(골프회)는 김원주 회장이 주재한 3월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만성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추대했다. 김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총무에 이성모 동문을 연임.

특히 사하(사상·북·강서)지역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박홍식 회장 주재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있다. 사하 지역회는 동기회 지역회 모임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용희 (28회)

프로야구 삼성 감독에



김용희 동문(28회·사진)은 11월11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발탁됐다.

라이온즈의 수석코치에서 승진, 세 사령탑을 맡은 김 동문은 99한국시리즈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서정환 전감독의 후임이다.

김 동문은 롯데의 타자 출신으로 82년부터 89년까지 선수생활을 했고 94년 롯데감독 등을 맡아 지략과 인덕을 갖춘 지도자로 평가를 받아왔다. 계약금은 1억원이고 연봉 1억원에 2년 계약을 맺었다.

제31회 북부회 창립

초대회장 정문 선임



제31회 동기회 북부지역회(금정동래 연세 부산진구 양산) 창립총회가 10월7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명장동 '제주도종래지집'에서 열려 초대회장 정문 동문(거림한의원 원장·사진)을 선임했다. 또 총무는 변성원 동문(자이언트 단란주점)이 맡았다.

박경수 동기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정원재 동기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 지역회의 동문·가족들이 화합과 우애를 다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역회 첫 체육대회 '결속과시'

제31회동기회

동문·가족 2백50여명 참석
우승 동부회·준우승 남부회

제31회동기회의 지역회 대항 첫 체육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결집, 과시했다.

제31회는 10월10일 오전 10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영도지역회 주관 제1회 지역회 동문·가족 친선체육대회를 열었다.

박경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부지역회(해운대 수영 남 기장), 남부지역회(영도 중 동), 서부지역회(서 사하 강서 김해), 북부지역회(금정 동래 연제 부산진 양산) 등의 동문·가족 2백5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10월10일 부산 영도구 중리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지역회 대항 체육대회 폐막식.

문·가족 2백5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소속 지역회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동문·가족들은 △병굴리기 △족구

△축구 △탁구공 릴레이 등 다양한 놀이로 기량을 과시한 끝에 동부지역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남부지역회, 3위는 서부

지역회, 4위는 북부지역회가 각각 차지했다.

체육대회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각 지역별로 단합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한편 동기회는 이 행사를 계기로 매년 지역별로 주관을 번갈아 맡아 치르기로 했다. 오는 2000년 제2회 체육대회는 해운대지역회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회관 개관 4돌 자축회

제 15회동기회

제15회동기회는 10월 21일 오후 5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610호 동기회사무실에서 동기회관 개관 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정기문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평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부홍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정 회장의 축시 낭송이 있었고 케익 절단식에 이어 삼패인 축배를 들었다.

제8회 클럽별 활동

잔디회 10월 정례대회

김영길·신성자 우승

제8회제경동기회의 골프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10월7일 안성 C.C에서 월례회를 개최. 이날 남자부 우승 김영길(77타 4언더)·준우승 이창근·행운상 이윤희 동문, 여자부 우승 신성자(이현문 동문 부인·94타 3언더)·준우승 양춘제(김영기 동문 부인)·행운상 장은아(윤태영 동문 부인)씨가 각각 차지.

팔선회 10월 바둑대회

손대근 우승·이준근 준우승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윤희)는 10월2일 오후 1시 일품기원에서 월례회 개최. 10명 참석. 손대근 동문이 5승2패로 우승, 이준근 동문이 4승1패로 준우승 차지.

제12회 경부골프대회

김영철 우승 차지



제12회동기회 용마골프회 주관 서울 동문 초청 골프대회가 10월16~17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강수현 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부산의 동문 4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16일 저녁에는 온천장 대성관 일식코너에서 전야제(사진)를 열었고, 17일에는 오전 6시부터 동부산C.C에서 10개조 라운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김영철 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메달리스트에 오른 김, 준우승에 윤학근, 3위에 심용치 동문이 각각 올랐다. 특히 김철기 왕한균 동문이 특별찬조를 해 행사를 뜻깊게 했다.

제15회 회장배 바둑대회

오종환·김지영 우승

제15회동기회(회장 정기문)는 10월23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기원에서 동기회회장배 바둑대회를 열었다.

김정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23명의 동문이 참석 A, B로 나뉘 토너먼트로 수단을 나눴다.

이날 대국에서 A조는 우승 오종환, 2위 유승덕, 3위 김삼용 동문이, B조는 우승 김지영, 2위 심재일, 3위 김기평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이날 동기회 산우회의 신홍규 김정환 동문이 협찬해 행사를 알차게 했다.

문경새재서 '잉고' 한아름씩

제14회 부부동반 산행

제14회동기회 산우회는 10월24일 문경새재에서 부부동반 가을야유회 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안상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38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했고 특히 노수덕 동기회장 내외가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부인들은 항상 산행기는 남편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분주함에서 벗어나 모처럼 야유회에 동반해 연신 즐거운 표정들

이었다.

일행은 오전 7시30분 부산 교대 앞 한양프라자에서 출발, 안양휴게소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구미를 지나 문경새재 입구에 닿아 등반을 시작했다. 제3관문에 도착해 근처 주막집에서 동동주를 한잔 하면서 가을단풍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하산길에 미루사지를 답사했다.

수안보온천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문경에서 메기와 쏘가리매운탕으로 소숫잔을 나누며 단합회를 벌였다.



제14회동기회는 문경새재에서 부부동반 산행을 열고 조령3관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왕산에 4백회 깃발

제17회 산우회 감격의 정복 6시간 만깃

제17회동기회 일철산악회가 '제400회동반' 깃발을 10월17일 경남 창녕의 화왕산 정상에 꽂았다.

하영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대회는 24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룡사 주차장~옥천계곡~정상~담안 옥천초등학교로 이어지는 6시간 코스에서 펼쳐졌다.

화왕산 정상에 오른 일행은 산행대회 '제400회 돌파'의 감격을 일제히 "야호!"로 만끽했다.

산행 후 부곡로얄호텔에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 일행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서구 동대신동의 '미소소주방'(박창호 동문 운영)에서 뒤풀이를 했다.

외도~해금강 '이동단합회'

제8회 43명 거제섬 일주 가을나들이

제8회동기회는 10월31일 반백과 대머리로 구성된 30명의 동문, '6학년 1반 여학생' 13명 등 모두 43명을 이끌고 가을나들이에 나섰다.

박동렬 회장이 행사를 주재한 이날 일행은 7시30분 부산을 출발, 마산~고성~통영을 지나 거제섬으로 갔다. 차중에서 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열심히 추구해온 소유욕을 이제 접어두고 무소유로 남과 더불어 배풀며 살아가자"고 말했다.

차는 구조포 포구에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일행은 이국적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환상의 섬' 외도에서 8백여종의 야생대 화귀식물과 조각공원, 유럽풍 정원을 2시간 가까이 구경하고 다시 파고 2m 넘는 물살을 가르며 천하절경의 해금강을 둘러봤다.

몽돌로 유명한 학동자갈밭에 둘러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술과 점심을 들었다. 서둘러 오후 3시에 출발, 해안도로를 따라 단풍으로 물든 거제섬을 완전 일주한 후 통영을 벗어났다.

이때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안병권 동문 부인(이정순)이 사회권을 발동, 노래를 시켜 출연료를 거둬고 마지막 명가수 배기현 동문 부인(유영자)의 연속 3장을 들으면서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다.

12월15일 송년회

제14회, 서면 롯데호텔

제14회동기회는 99년 송년회를 12월1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면 롯데호텔 2층 사파리룸에서 부부동반으로 개최한다.

제27회 부산·서울 합동산행대회

황악산에 '용마저력' 가득

제27회 이철산우회 주관 부산·서울 가족동반 합동산행대회가 11월14일 김천 근교 황악산(1,111m)에서 열렸다.

부산에서는 김태우 회장과 장기남 산행대장 등 28명이, 서울에서는 안중식 회장을 포함해 22명 등 모두 50명이 참석했다.

이철산우회 9주년 기념 및 제109차 산행대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안중식 재경회장의 지난 7월 제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경 경부 김천 근교 직지사 앞 광장에 집결한 부산과 서울의 동문·가족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산행에 돌입했다.

선발대는 오후 12시50분경 능선에 올라 후미조가 도착하자 점심식사를 했다.

짧은 휴식을 취한 일행은 다시 산행을 강행, 오후 3시경 정상에 올랐고 기념촬영을 한 후 하산을 재촉했다.

단합회는 오후 5시30분 직지사 앞 '산마을식당'에서 열렸다. 부산의 김



제27회 동문·가족들이 황악산에서 부산·서울 합동산행대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진 동문이 재치 넘치게 사회를 맡아 좌중이 시종 폭소 속에 감싸여 우정의 꽃을 피웠다. 서울과 부산의 집

행부는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와 박수를 받았고 노래자랑으로 분위기를 달궜다.

용마가족은 오후 8시20분 서울서 대절해온 관광버스로 김천역으로 이동했다. 차중에서는 부인들이 경부대항 노래자랑을 벌였고 안중식 재경회장의 '차표 한 장' 선창에 따라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을 합창했다. 역광장에서 "내년에 다시 만나자"며 모두들 작별의 손을 흔들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재경측은 8월에 관광버스를 예약했고, 부산측은 김태우 회장과 장기남 산행대장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위해 전반적 계획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강태영 동문은 황악산 산행로 산행정보 일일 등을, 강봉호 동문은 행사 5일 전에 현지 답사를 통해 코스 및 입산 통제여부, 단합회 장소 예약 등을 수행했다.

金聖贊 교장 귀하.

영원한 나의 모교 경남고등학교 방문은 나에게 큰 인상과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먼 저 평소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김 교장 이하 전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나의 모교 방문은 참으로 뜻깊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천7백여명의 후배 재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뜨겁게 환영해준 것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

김영삼 전대통령 편지

였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보다도 좋은 시설과 환경,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 그리고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우수한 학생, 이 모든 것이 우리 학교의 긴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면면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평생을 두고 나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었으며, 특히 고난

과 고통의 시절에는 뜨거운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금번 모교 방문으로 경남고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대단히 기쁘고 호뜻한 마음입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경남고등학교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명문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이어 나가길 당부하며, 김 교장과 전 교직원, 그리고 후배 재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1999년 10월19일
金泳三

제26회동기회 이런 일, 저런 일

제26회동기회(회장 장경재)는 10월2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개화'에서 10월 월례회를 열었다. 한편 각 클럽과 지역회도 모임을 갖고 화합과 결속을 확인했다.

클럽별 활동

△26테(테니스회)=10월16일 천선모임. 8명 참석. 경기 후 가을 전어와 소주 한 잔. 한편 10월2일 사하구 다대동 대성구장에서 제28회와 공동행사. 17명 참석.

△26악(산악회)=10월16일부터 이틀간 매곡골 파레스유스 호스텔에서 32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 등반대회 개최. 신임회장에 김태년 동문 선출.

일행은 16일 저녁 캠프파이어 아래 설광용 동문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야외에서 '열린음악회' 개최. 서경호 유봉식 하성봉 트리오의 특별쇼에 모두 심취.

부회장 하성봉, 총무 이성복 동문. 전임회장 이근범 직전회장에 행운의 열쇠 수여.

△26골(골프회)=10월13일 동부산 C.C에서 동기회장배 친선경기. 11명 참석. 우승 김태년·준우승 박동기·롱리스트 김두천·니얼리스트 최윤림·메달리스트 김광대·행운상 이철학 동문 각각 차지.

△26기(기우회)=10월9일 태양기원에서 6명 참석한 가운데 수담.

지역회 활동

△월우회(수영 남 해운대구 모임)=회장 지용섭. 10월30일부터 무박2일 일정으로 경주보문C.C에서 단합회 겸 체력증진 대회.

△비바회(금정 동래구 모임)=10월22일 수영구 남천동 '북한음식'에서 모임.

△사이육(사하구 모임)=10월19일 오후 7시 하단오거리 근처 '교자당'에서 모임.

한편 9월21일 오후 7시 사하구 하단동 '강촌가든'에서 모임을 가진 후 사하지구동창회 행사에 참석. 제26회를 중심으로 제47회까지 40여명의 동문이 모여 송년회 계획을 확정. 제26회 후원으로 피자 한판씩 돌림.



북가주지역동창회 동문·가족들이 밀피타스시 근교 레빈카운티공원에서 열린 여름소풍 모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2월 16일 재경15회 송년회

국악인 김준호·손심심 부부 초청 공연

제15회재경동기회 '99송년잔치가 오는 12월16일(목) 오후 7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 3층 '에메랄드룸'에서 부부동반으로 열린다.

김송평회장은 "이날 국악인 김준호 손심심 부부를 초청,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격조 높은 송년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기회의 여러 직능회 최근 활동은 별항과 같다.

한진출 골프대회 스폰서 바둑 안신박 우승

△보름회(골프회)=10월20일 낮 12시30분 태영C.C에서 한진출 동문이 상품과 식음료를 스폰서한 월례회 개최.

△보름기우회(바둑회)=9월12일 명인포럼에서 3/4분기 대회 개최. 이날 우승 안신박·준우승 김충식·3등 함신치 동문이 차지.

황장도 용금회 협찬

△용금회(금융출신)=9월15일 '동천호'에서 11명의 동문이 참석한 정기모임 개최. 최근 현직을 떠나는 동문들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 모임을 열어 활성화 촉진키로 결의. 매달 15일에 점심, 저녁 모임을 번갈아 갖기로. 이날 황장도 동문(대한화재보험 대표이사)이 스폰서.

밤·대추 줍고 금슬도 따고

제18회 밀양서 야유회

제18회동기회는 10월3일 경남 밀양시 산외면 활성동에 있는 1만5천평의 밤나무밭에서 밤과 대추줍기행사를 가졌다.

강동섭 회장이 주재한 이날 나들이는 13쌍의 부부를 포함 50명이 참석,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오전 9시30분 부산역 앞을 출발한 일행은 2시간만에 현지에 도착, 4시간에 걸쳐 밤줍기에 나서 일인당 2자

루 이상의 밤과 대추를 따는 기쁨을 맛보았다. 한편 점심시간에는 특별히 주문한 토종닭과 청둥오리가 나와 모처럼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맛을 보는 즐거움까지 만끽했다.

동문들은 한결같이 "정말 멋진 하루였다.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자"고 입을 모았고, 부인들도 "남자들이 밤 줍느라 정신이 팔려 술도 마시지 않아 좋다"며 "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건의했다.

귀가길은 절경이 펼쳐지는 연양쪽



밤 줍기 나들이에 나선 제18회 동문·가족들이 귀가길 석남휴게소에서 기념 촬영.

을 택했으나 차가 밀려 3시간이 넘게 걸렸어도 배낭 속에 가득한 밤과 대추 생각에 지루함을 잊었다.

18회 동기회사무실 목우정에 목판 부착

제18회동기회는 10월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동기회사무실 출입문에 '木友亭'이라는 사무실 푼말을 현판했다.

이 '木友亭'은 가로 20cm, 세로 40cm의 목판으로 피나무에 음각으로 새겨졌고 글자는 경남고의 상징색깔인 옥청색을 썼다.

이 목판은 이재일 동문이 목우정 출입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아쉽다는 동문들의 말을 듣고 전각에 뛰어난 솜씨를 가진 전문가에게 부탁해 제작했다.

뉴질랜드지역동창회 임원·회원 일동

고 문 김수홍(16회)
노경현(16회)
회 장 차준호(구 순도·18회)
부회장 이상수(23회)
총 무 김승덕(28회)
감 사 장세영(27회)

회 원 정형화(18회)
이한옥(18회)
김진원(20회)
조대호(20회)
최홍수(20회)
안성길(20회)

이세경(23회)
문주열(23회)
정동호(23회)
김수룡(25회)
류한욱(27회)
신명철(28회)

안준모(28회)
정현배(29회)
박상규(30회)
이성훈(31회)
조봉래(31회)
운용재(34회)

김성중(36회)
김수현(36회)
하병갑(37회)

동문여러분의 뉴질랜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 (Tel) 09-415-2248, 09-529-1662. (Fax) 09-415-2249



워싱턴지역동창회 단합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삼우정 앞에서 기념 촬영. 앞줄 왼쪽부터 성광수(15회) 윤성희(12회) 박경배 동문(29회), 둘째줄 왼쪽부터 최동영(13회) 이수권 동문(13회), 뒷줄 왼쪽부터 김기공(22회) 안준철(17회) 김영호(7회) 박길호(3회) 박재규(11회) 구경명 동문(18회).

박길호 동문(3회) 공직생활 은퇴 기념

워싱턴지역 단합회

미국 워싱턴지역동창회는 7월17일 오후 7시(현지시간) 구경명 동문(18회)이 운영하는 '삼우정'에서 박길호 동문(3회) 은퇴기념 단합회를 벌였다.

안준철 회장(17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11명의 동문이 참석, 박 동

문에게 기념패를 증정, 축하했다.

박길호 동문은 61년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여년간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활약하면서 세계적인 해양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반세기 전 제7회 학창시절 그 추억...

'학교死守'투석전 완승

모교에 입학, 6년을 채우고 교문을 떠난 지 어언 46년의 세월이 흘러 고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나이다. 학교를 정발당해 옮겨다니다 구덕산 기슭 한자락에 자리를 잡은 것이 오늘 모교다.

철판은 소나무 양쪽에 못을 치고 매달았으며 밑변이 반반한 돌을 주워와 깔고 걸상으로 삼았다. 노천수업이라 비오는 날이면 수업을 할 수 없었다. 하늘에 비구름만 끼어도 "선생님 비오겠습디, 수업 그만 합시다"라고 여쭙면 선생님은 "야, 이놈들아! 구름이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란 일격에 콧잔을 당했던 그 시절이 꿈만 같고 우습기도 하다.

전쟁통에 학교수업은 뒷전이고 각자 연고지를 찾아 뿔뿔히 헤어졌던 학우들이 약 일년만에 모이기 시작하자 어떤 친구들은 학업을 포기한 채 군에 들어갔다고 한다.

노천수업을 겨우 면하고 천막교실을 마련하여 제법 호강스런(?)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 난데없이 모교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상대는 모교 밑에 자리잡은 D 대학. 그쪽 대학생들이 작당하여 쳐들어오니 우리 또 결사적으로 투쟁을 해야 했다. 무기라곤 깔려있는 돌맹

이며, 몽둥이를 손에 딱치는 대로 집어들고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다. 우리들의 위압(수적으로 우세)에 내리검을 먹고 삼삼육육하던 그 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어떤 대학생은 주먹 센 우리 친구들에게 얻어터져 다리가 날 살려라고 달아나던 일이며, 심지어 분노세레까지 맞고 다급한 김에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줄행랑치던 모습들이 아련하



최진규 (제7회)

다. 뒷일은 학교장이 해결했다. 이렇게 제6, 7, 8회생들이 중심이 돼 학교 정발전에서 이긴 공적이 모교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으리라 자부한다.

또 하나의 중대사건. 중학 5학년 때 문교행정의 졸속작품으로 부산서는 단 하나만의 고교(인문계)가 세워진다는 학제 변경에 따라 P고교에 우리 몸통에서 60여명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고교 2년생으로 자동

편입되어 '제일고'란 간판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P고를 간 친구들은 텃세에 눌려 맥을 못추게 되자 다시 모교로 복교하자는 교섭도 더러왔지만 무산되었다.

학교 댄 구덕운동장 아래로 쪽뻗은 동대신동 명거리(?)에서 P고생들과 랑데뷰하던 일 등 추억이 새롭다. 특히 어느 몇명이 "누가 저 여학생 머리에 교모를 씌우겠느냐"고 제의하자 한놈이 슬쩍 다가가서 모자를 씌웠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간 큰 소녀였다. 그녀는 교모를 쓴 채 앞만보고 유유히 걸어갔다. 교모를 회수하기 위해 하는 수없이 그녀 앞에서 항복했고, 그 여학생은 기세등등해 하며 킬킬거리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인생은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다던가...

나는 가끔 구덕산 줄기를 타러 조기등산을 한다. 내려오다 보면 원형교사와 체육관이 한쪽의 그림과 같이 숲속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모교가 일국의 대통령까지 배출시킨 명문교에 자부심을 갖게 되며 또 어떤 때는 행복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한다.

이젠 우리도 늙었다. 백발이 나날이 앞서가니 무슨 수로 가는 세월을 붙들어 땀까. 인생칠십이(人生七十而) 종심소욕(從心所欲)하고 불유구(不憂懼)라하였던가. 즉 인생칠십에 마음 따라 욕망을 갖되 법도에 넘치지 않게 할지언정 고사를 되새긴다. 모교여, 친구여, 영원하라!

발언대

"기별야구대회를 살리자"

김현수

제27회 전회장

대망의 제31회 기별야구대회가 10월10일 오전 10시 경남고구장에서 입장식에 이어 연합 A, B팀 오픈게임과 제14-15회의 첫 대전으로 막을 올려 11월6일(토) 결승전을 향해 대장정에 들어갔다.

각 동기회 총무들의 협의체로 지난해 재정비 발족한 총무단협의회(경총회: 회장 5회 김수현·간사장 16회 옥윤석)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기별야구대회 활성화를 위해 우승·준우승팀, 그리고 최다입장 참여기수 5위까지 상금과 상품을 내걸고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각 동기회 총무 모두가 이에 동조하여 소속 동문들에게 참여 독려를 한 결과 이날 제32회는 8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여하여 최다참가상을 수상했다. 50세가 훨씬 넘은 선배 동기회에서 50~60명씩, 동기회별 평균 30여명이 나와 성황리에 입장식 행사를 마쳤다.

그러나 우리 동기회에서는 '제27회' 피켓을 들고 있는 재학생 뒤로 총무 김경진·김

현수만 덜렁 외롭게 서 있어 너무 민망하고 창피스러웠다.

개별적으로는 자주 만나고 활성화된 그룹별 취미 모임에는 참여도가 높는데, 동창회 행사 만큼은 우리 27회의 참여도가 왜 이다지도 낮은지? 우리 동기들의 동창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 점점 식어가는 동창회 사랑, 과연 이렇게 계속 방치하여야 하는가?

김태우 동기회장, 김경진 총무 그의 몇몇 동문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노력도 여러 동기들의 협조, 참여가 없으면 빛이 나지 않을 것이다. 부디 이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우리 모두 격려를 보내며 동창회, 동기회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제 한 걸음씩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면 어느 동기회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용마 이철동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 그날 그 목표를 향하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기별야구대회를 만들어 보자. 그리하여 전통의 기별야구대회를 중흥시켜 이 대회를 통해 동창회 활성화를 촉진하자.

부인석

'추억 만들기' 기별야구대회

정해선

제34회 황병주 회장 부인



제31회 기별야구대회가 남편의 모교에서 열리는 날, 나는 남편과 그곳으로 갔다.

길이 끝이 나고 학교로 접어들자 마치 나는 나의 모교에 온 것처럼 무척 정겨웠다.

나무를 흔드는 바람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다람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우리를 반기고 있는 듯했다.

저만치 스탠드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럿이 모여 앉아 가을햇살을 맞으며 조금은 지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중엔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뵈는 분들이다.

낮설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미리 준비해둔 점심과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얘기를 주고 받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곧이어 야구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따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 모여 앉아 북소리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남편은 흐뭇함을 느꼈다.

사실 한달 전부터 남편은 동기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겪었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대부분이 야구대회에 참석치 못할 거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나와 남편은 무척 절망적이었고 조금은 쓸쓸함과 한량없는 외로움을 맛보았다. 하지만 오늘 생각보다 가족과 함께 참석한 분들이 많아 나와 남편은 무척 행복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 떼를 따라 그림자를 찾아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면서 우리는 아무런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하루를 지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 속에 그리며 내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우리는 솔바람 향기를 맡으며 교정을 걸어나왔다.

(주) 기 명
(주) 기명개발
동국제강 협력업체

대표이사 황태원(19회)
전 무 하광진(14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1동 514번지
051-327-6606~7
051-756-1257~8



대경명란 (주)

강창수(21회)

본 사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산동 2가 70-2
TEL: (051)255-7211~3
FAX: (051)255-7214
서울영업소 TEL: (02)593-6163

Wolsey
240년 전통의 영국 정통 골프웨어 - 울시

울시 상설 할인 매장
(정상가의 60~50% 할인)

남녀골프웨어 전품목
(티셔츠, 바지, 잠바, 니트, 조끼, 남방, 시파리 등)

대표 임재철(22회)
부산 수영구 광안3동 1072
Tel 752-2829 Fax 752-2830 H-P: 011-229-1153

UPS
(무정전 전원장치)

정확하고 안전한 UPS를 만족스런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한 A/S를 보장하겠습니다.

컴퓨터 및 전자·정밀기기의 전원장애 시 배터리 저장전원을 즉각 공급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장치.
AVR 자동전압조정기, 전산부대시설

星和機電 T)051-582-6634
대표 이성복(26회) F)051-582-6638

제31회 기별대항야구대회 전황 ('99부산시리즈)

결승전

제24회-제38회

11월6일 경남고 14: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7	0	2	0	5	2	1			17
제38회	0	1	0	4	1	6	2			14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4회	35	10	14	10	9	·	3	2	7	7
제38회	38	14	18	14	12	1	1	4	5	0

- △ 제24회
투수=정기춘, 변정규, 정기춘
포수=노상우, 강영창
2루타=황성동(6회), 강종문(2회)
- △ 제38회
투수=장철호, 차정호
포수=김문철
3루타=노재완(4회), 김태성(7회)
2루타=노재완(4·6회), 제태훈(3·4·7회), 김원철(6회)

투수=장철호, 차정호
포수=김원철
홈런=김원철(2회 1점)
2루타=김문철(5·7회), 김태성(4회), 김원철(1회)

팽팽한 접전이였다.
제33회가 1회초 김종인 이윤조의 안타로 3점을 선취, 핸디 포함 5-0으로 앞서 갔다. 그러나 1회말 38회 차정호 김원철의 안타와 김원철의 2루타로 대거 7득점 7-5로 역전, 이어 2회말 김원철의 홈런으로 8-5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3회초 33회 박상국 이윤조 백훈문의 연속 안타로 2점 추가, 1점 차로 따라붙고 4회초 10-8로 재역전에 성공.
4회말 38회 김태성의 2루타와 김원철의 적시타로 1점 차로 추격하고, 5회말 차정호의 안타, 김문철의 2루타, 이성훈의 내야 안타로 2점 추가 11-10으로 다시 재역전.
33회 6·7회 각 1점씩 추가하고, 38회도 6회말 1점을 추가해 12-12 동점이던 7회말 38회 공격, 1사 이후 김문철의 2루타가 터지고, 다시 이성

△ 제24회
투수=정기춘, 변정규
3루타=정기춘(1회)
2루타=이종구(4회), 오기봉(1·4회), 장한중(4회)

24회 선발투수 정기춘이 22회 타순을 5회까지 3안타 3실점으로 막고, 1회말 2사후 3번 이종구가 포문을 열고, 오기봉의 2루타, 황성동의 단타, 정기춘의 3루타가 연속 폭발해 4점을 선취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4회말에도 이종구, 오기봉의 2루타와 강영창, 장한중의 적시타로 다시 4점을 추가, 쟁기를 박았다.
22회는 5회초 최만철, 장성덕의 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3점을 따라 가는데 그쳤다.

8강전

제38회-제45회

10월30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8회	6	1	4	1	0	0	0			12
제45회	0	3	2	2	2	0	0			9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8회	32	9	13	9	8	·	4	4	5	3
제45회	33	9	14	9	16	·	4	5	7	0

- △ 제38회
투수=장철호
포수=김원철
3루타=차정호(5회)
2루타=제태훈(3회), 이성훈(1회), 김원철(4회), 류용식(3회)
- △ 제45회
투수=강상석, 손창호
포수=이동진
3루타=이동진(2·5회)
2루타=강상석(3·4회), 이동진(4회)

38회는 1회초 서승현의 내야 안타와 이성훈의 2루타로 3점을 선취하고, 2회에는 상대 실책으로 1점, 3회는 제태훈 류용식의 2루타로 4점을 추가해 앞서 나갔다.
45회도 이동진의 3루타 2개와 2루타 1개, 단타 1개로 4안타를 치고, 강상석도 2루타 2개를 치며 추격했으나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제33회-제44회

10월30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3회	8	4	0	1	2	1	1			17
제44회	0	1	0	4	1	0	1			7

△ 제33회
투수=장철호, 차정호
포수=김원철
3루타=차정호(5회)
2루타=제태훈(3회), 이성훈(1회), 김원철(4회), 류용식(3회)

△ 제44회
투수=배종세, 석상봉
포수=이태식, 안병규
홈런=전광열(2회 1점), 박중현(4회 2점, 5회 1점)
2루타=김성욱(4회), 박중현(2회)

제31회 기별야구 입상자 명단

부·산·시·리·즈

- 단체상
△우 승: 제24회
△준우승: 제38회
-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장한중(24회)
△최우수투수상: 정기춘(24회)
△감독상: 장만재(24회)
△수훈상: 장철호(38회)
△타격상: 1위 박중현(44회·88할7푼5리·8타수 7안타) 2위 박상국(33회·8할5푼7리·14타수 12안타) 3위 배종세(44회·8할5푼7리·7타수 6안타)
△감투상: 노상우(24회) 차정호(38회)
△미기상: 이방우(24회) 제태훈(38회)
△인기상: 김학주(24회) 김원철(38회)
△인기가족상: 광동열(38회)

△공로상: 전광열(44회)
△홈런상: 배경환(29회) 천장호 김중호(이상 31회) 김종인 박상국(이상 33회) 박재찬(34회) 이성훈 장철호 김원철(이상 38회) 전광열 김성욱 박중현 김영주(이상 44회) 이동진(45회) 전홍순(46회)

서·울·시·리·즈

△최우수선수상=황준호(39회)
△수훈선수상=김준배(39회)
△우수선수상=우용하(24회), 김명수(28회), 어진우(29회)
△미기상=박인권(23회), 이진재(24회), 김정현(40회)
△수위타자상=김명수(28회)
△타격상=신광태(28회), 신동관(39회), 이범익(29회)
△공로상=정기조(29회)
△특별상=장태영 고문(4회).

- △ 제19회
투수=계용찬
포수=김중기
3루타=이창근(3회)
- △ 제24회
투수=정기춘, 변정규
포수=이선재, 노상우
2루타=김학주(1회), 오기봉(1회), 이정규(4회)

24회는 정기춘과 변정규가 이어 던지며 19회 타선을 2점으로 꼭 묶었다. 1회말 김학주 오기봉의 2루타로 3점을 얻고 이어 2회에서도 장한중 이선재의 적시타로 5점을 보태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19회는 3회초 이창근의 3루타와 정학영의 적시타로 2점을 추격했으나 애석하게 패하고 말았다.

제20회-제22회

10월30일 경남중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0회	1	1	0	0	0	1	0			3
제22회	3	0	1	1	7	1	X			13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0회	25	2	5	2	5	0	1	7	3	1
제22회	41	13	16	13	8	·	2	7	2	·

- △ 제20회
투수=송근호, 백승만
포수=박삼성
2루타=조현진
- △ 제22회

(7면에 계속)



제24회 동문들이 제31회 기별야구대회 우승을 자축하며 행거를 치고 있다.

준결승전

제33회-제38회

10월31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3회	5	0	2	3	0	1	1			12
제38회	7	1	0	1	2	1	1			13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3회	32	10	13	10	4	3	1	3	7	2
제38회	35	13	14	13	9	·	7	7	10	·

- △ 제33회
투수=김재선 고재훈
포수=공진우
2루타=박상국(4회, 6회)
- △ 제38회

훈의 안타로 1사 1·3루, 김태성의 데드볼로 1사 만루, 이어 김원철의 삼진으로 2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포볼로 승부는 38회로 넘어갔다.

제22회-제24회

10월 31일 경남고 12: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1	0	0	0	3	0	0			4
제24회	4	0	0	4	1	1	X			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28	3	6	3	1	1	1	3	6	1
제24회	32	10	14	10	6	·	1	1	5	0

- △ 제22회
투수=김교철, 이대섭
포수=최만철

제11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郭正出
徐根照
安康泰
吳完洙
柳興洙

회 장
吳鍾錫

부회장
金炳基
廉漢鎬
李 明
崔亨旭

이 사
金達經

金東基
金鏞正
金仁植
金重河
南瀨鉉
朴聖佑
潘泰柱
申大守

申允業
梁雄錫
吳吉勳
李相泰
李相勳
李聖光
李在珍
張英權

鄭光雄
池鉉浩
千金準
崔得鎬
韓榮圭
洪起煥
玄正春

감 사
崔永守

총 무

金東式: 017-593-2778

* 동기회사무실

051-464-3511

(6면에서 계속)

투수=김교철
포수=최만철
3루타=김교철(5회)
2루타=이용규(1회), 조흥기(6회), 최만철(5회), 김영호(4회)
22회는 1회말 이용규의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흥기와 김교철의 적시타로 3점을 뽑으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3·4회에도 1점씩을 추가해 앞서 나갔다. 5회말 2번 이용규의 안타를 시작으로 8번 장성덕까지 연속 7안타를 몰아쳐 7점을 건져 승부를 결정 지었다.

16강전

제20회-제29회

10월24일 경남고 15: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0회	4	2	1	3	0	4	1			15
제29회	1	1	1	1	2	1	2			9
제20회	39	11	18	11	4	1	1	6	8	4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29회	36	9	15	9	9	·	·	8	6	·

△ 제20회
투수=송근호
포수=박삼성
2루타=송근호(2·6회), 김조동(6회)
△ 제29회
투수=장현경
포수=추연철
2루타=배경환(3·7회), 추연철(7회), 장현경(5회)

20회 투수 송근호가 완투하며 노련한 경기운영을 펼치며 경기를 앞서 나갔다.
20회는 2회초 송근호의 2루를 포함해 연속 5안타를 몰아치며 2득점하고 3·4회에도 송근호의 적시타와 박재용 옥원재의 안타로 각각 1점, 3점을 추가해 계속 달아났다. 6회에도 송근호 김조동의 2루타로 4점을 추가, 승리를 결정지었다.
29회는 매회 득점하고, 특히 배경환이 4타수 4안타를 치며 분전했으나 역부족.

제33회-제41회

10월24일 경남고 13:2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3회	9	7	2	1	0	1	0			20
제41회	2	4	0	1	0	1	0			8
제33회	36	16	16	16	7	1	6	7	6	4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41회	36	8	11	8	7	·	4	3	8	

△ 제33회
투수=고재훈, 이정호

포수=공진우
2루타=김종일(1·2·2회), 박상국(2·3·4회), 이윤조(2회), 백홍문(1·2회), 공진우(2회)
△ 제41회
투수=최병호, 허치회, 정삼록
포수=김인수
2루타=김득수(1회), 정삼록(1회)

33회의 막강 타봉이 초반에 폭발해 쉽게 승리했다.
1회초 선두 김종일의 2루타와 연속 포볼에 이은 5번 백홍문의 좌중간 2타점 2루타와 윤상현의 적시타가 터져 5점을 선취. 이어 2회초에서도 5연타수 2루타가 터져 대거 7점을 추가해 승리를 결정지었다.
41회는 1·2회 김득수 정삼록의 2루타로 6점을 건져 추격했으나 점수차가 너무 멀어 패하고 말았다.

제34회-제38회

10월24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4회	2	0	2	3	1	0	3			11
제38회	3	3	0	2	0	4	X			12
제34회	32	9	11	9	5	·	2	8	4	2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38회	35	12	13	13	9	·	·	8	5	·

△ 제34회
투수=이재봉
포수=권대식
홈런=박재찬(4회 3점)
3루타=김한조(7회)
2루타=박재찬(3회), 김한조(1회), 이문걸(5회)
△ 제38회
투수=장철호
포수=김원철
홈런=장철호(6회 1점)
3루타=김원철(6회)
2루타=김문철(1회), 김태성(6회)

8-8로 팽팽히 맞서던 6회말 38회 선발이자 1번 타자인 장철호가 좌월 홈런을 치며 균형을 켜다. 이어 김원철의 3루타와 김태성의 2루타로 3점을 추가, 12-8로 쉽게 이기는 듯했다.
34회의 반격도 대단했다. 7회초 선두 박재찬의 안타와 원대식의 2루타, 김한조의 3루타, 이문걸의 단타로 3점을 만회하며 1점차로 따라 붙었으나 후속타 불발로 역전에는 실패했다.

제19회-제28회

10월24일 경남중 15: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19회	4	1	1	0	3	0	0			9
제28회	1	0	2	0	0	0	0			3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19회	35	5	8	5	7	1	1	8	7	4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28회	33	3	6	3	4	·	3	10	8	·

△ 제19회
투수=계웅찬
포수=김중기
2루타=허홍욱(2회)
△ 제28회
투수=조광제
포수=김명보
3루타=김이청(1회)
2루타=김이청(3회)

19회 투수 계웅찬이 막강 타선 28회를 단 6안타 3실점으로 요리하고, 매회 찬스 때마다 희생번트, 기습번트 등으로 확실한 플레이를 보이며 28회 내야진을 흔들어 놓으며 승리했다.

제44회-제46회

10월24일 경남중 13:2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4회	6	0	2	0	1	1	4			14
제46회	0	1	2	0	4	0	1			8
제44회	33	13	10	13	4	·	4	4	3	1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46회	32	8	10	8	4	1	2	6	6	·

△ 제44회
투수=배종세
포수=이태식
홈런=박종현(3회 2점), 전광렬(5회 1점), 김성욱(7회 3점), 김영주(1회 1점)
△ 제46회
투수=김희근, 오윤택
포수=전홍순
홈런=전홍순(5회 3점)
2루타=오윤택(3회), 송영주(3·7회), 서용택(7회)

44회는 1회초 선두타자 김영주의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안병규 박종현 김성욱 배종세의 연속 안타로 6점을 넣으며 앞서 나갔다.
3회초에도 박종현의 2점 홈런, 5회 전광렬의 솔로 홈런으로 앞서 나갔다.
7회초에도 10-7로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김성욱의 좌월 3점 홈런으로 46회의 추격의 의지를 꺾었다.
46회에도 전홍순이 5회 3점 홈런을 치며 선전했으나 어렵게 패했다.

제22회-제31회

10월23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10	2	0	2	4	12	0			30
제31회	3	0	0	4	6	0	0			13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2회	49	26	30	26	10	·	4	7	8	4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31회	40	13	16	13	12	·	2	6	8	·

△ 제22회
투수=김교철, 이대섭
포수=이민성
2루타=김승규(2·6·7회), 조흥기(5·6회), 이대섭(1·5회), 이용규(2·6회), 김명호(1회), 최만철(6회)
△ 제31회
투수=김종호, 천장호
포수=박무철, 박재성
2루타=서민성(5회), 천장호(1회), 김종호(5회), 박무철(4회)

22회의 압승.
1회초 6타자 연속 안타로 6점을 빼냈다. 매회 추가점을 올리고, 특히 6회에는 타선이 2바퀴나 돌면서 12점을 몰아 뽑는 폭발력을 보였다.
이날 1번 김승규는 5타수 5안타, 3번 조흥기는 4타수 4안타를 쳐 팀 승리의 수훈이 되었다.
31회는 4번 김종호와 5번 배정호가 각각 4타수 4안타를 치며 분전했으나 패하고 말았다.

제43회-제45회

10월23일 경남고 13:30

제31회 기별야구대회 이/모/저/모

△이길상(6회) 협찬금 전달
이길상 동문(6회·부산시야구협회 부회장)은 입장식에 참석, 협찬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제6회 꽃동네서 야유회 즐거
제6회동기회(회장 임상택)는 입장식을 마친 후 15명의 동문이 꽃동네에 올라 오리블고기 파티를 열고 소꿉잔을 나누며 우정을 나눴다. 정소영 본부회장이 식대·주류 스폰서
△제12회 연합 경기 전 맹연습
제12회동기회는 입장식에 22명의 선수와 응원단이 참석, 연합팀 경기에 연합A팀 구성이 여의치 않아 시합이 불발하자, 선수 대기실에서 담을 훌리며 몸을 풀고 있던 12회 선수들의 항의로 제14, 15회 후보선수들로 구성된 연합A팀과 친선 시합을 벌였으나 10대 3으로 패했다.
△제14, 15회 정다운 합동식사
영원한 맞수 제14, 15회동기회가 입장식날 첫 경기를 앞두고 우미옥해장국집에서 점심을 주문, 스탠드 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 또 제14, 15회가 다수입장상을 받고 상금 10만원씩을 받고 경기한 결과 15회가 차지.
△결승전 시구, 연습 후 던져
결승전 경기 전 김수현 경총회장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3회	2	1	0	1	4	0	1			9
제45회	7	1	0	4	2	0	X			14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3회	32	8	14	8	4	·	2	7	4	1
	타	득	안	타	도	회	사	삼	잔	한
	수	점	타	점	루	타	구	진	루	디
제45회	32	14	14	12	10	·	4	7	4	·

△ 제43회
투수=이학노, 강진만
포수=정재욱
2루타=최광열(1회), 문영찬(5회), 장시호(5·7회), 주용준(2회), 강진만(6회)
△ 제45회
투수=정수정
포수=이동진
홈런=이동진(1회 1점)
45회는 1회말 선두타자 이동진의 선제 홈런과 강상덕 정창욱의 적시타로 대거 7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았다. 이어 4회에도 강상덕의 2타점 적시타와 박진수의 안타로 4점을 추가, 승부를 갈랐다.
43회는 5회 문영찬 장시호의 2루타로 4점을 넣으며 추격했으나 45회 투수 정수정의 구위에는 역부족.

(5회)이 시구하기 전에 공을 먼저 던져 연습을 한 후에 하겠다며 해프닝 연출.
△재학생 2백50여명 열린 응원
11월6일 열린 결승전은 경남고 재학생의 뜨거운 응원으로 분위기를 한층 달구었다. 본부동창회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
△제24회 시간끌기 작전(?)
서울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주전 4명이 비행기 연착으로 늦어져 시간끌기 작전(?) 2회말 뒤늦게 도착한 동기생들이 경기에 합류하자 활기를 찾고 경기에도 열중.
MVP 장한중(24회) 감격 한마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장한중 동문(24회)은 인터뷰를 통해 “큰상을 받도록 배려해 준 황상동 감독에게 감사한다”며 “바쁜 와중에도 멀리 서울에서 매주 내려와준 동기들과 성원해준 동문들에게 상을 돌린다”고 말했다.
특히 장민재 야구회 회장의 애살로 애로사항없이 전원 단합하여 화기에 애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대회로 통해 동기들과 소주도 한잔할 수 있어 기뻐하며 내년 대회에서도 성적에 연연하기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26회동기회 의약계 동문 명단

일반의사

최병무 동아대학병원 정신과 240-2973
박상호 박상호정형외과 326-0888
정수화 정수화피부의원 335-0012
장경재 대동병원 방사선과 554-1233
임창현 침례병원 임상병리과 461-3251
성백운 성백운소아과 404-2800
김영훈 동아대부속병원 240-2981
양승림 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 970-5114
이무하 위생병원 정형외과 248-5151
김성환 김성환소아과 867-6632
이종인 이종인의원 신경과 466-8392

황광수 문화병원 소아과 644-2002
백유찬 현대병원 산부인과 553-6161
정문기 부산의대 비뇨기과 240-7347

치과의사

김택영 한겨레치과 203-2119
추창구 한겨레치과 203-2119
김태규 미네소타치과 966-7575
이병욱 한겨레치과 853-2511
최 현 최치과의원 원장 746-3747
장종언 한겨레치과 809-2511
최태룡 하안치과 558-2181

권종대 권종대치과의원 원장 811-1205

한 의사

안공립 고려한방병원 803-0261
이한철 태광한의원 581-4201

약사

신형진 우일약국 864-3374
안수정 우성사약국 646-0233
김 형 동남약국 782-1902
정국근 석인약국 747-8589



갈수록 참여도 높아

제15회 월례화... 주유탕 영화특강

제15회동기회는 10월21일 오후 7시 아리랑 관광호텔 2층 '사계절홀'에서 5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사진)를 개최했다.

정기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판열 총무의 각 소그룹 근황·기별·야구대회 참석·보름장터 7주년 기념식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다가올 경부 합동산행대회와 회장배쟁탈 바둑대회 등 행사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주유탕 동문(경성대 멀티미디어정보 대학장 겸 대학원장)이 '영화에 나타난 사랑, 성,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주제의 특강을 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대구에서 조규중 배봉화 이치영 동문이, 울산에서 정동포 동문이 참석해 큰 환영 속에 기쁨이 더했다.

속리산에 경부가족 총집결

제22회 첫 합동산행대회 열어

제22회동기회 첫 경부합동 월례 및 산행대회가 10월24일 충북 보은 근교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속리산 주차장에는 서울에서 김창해 회장을 비롯한 28명, 부산에서 구자룡 회장을 포함한 32명 등 모두 60명의 동문이 재회하는 반가움으로 한때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부산에서 준비, 배분해준 도시락을 지참한 일행은 법주사 태평교~세심정~목욕소~금강굴휴게소까지 와서 소주 한 잔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다. 앞서 매표소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김영철 동문과 대머리 김성태 동문이 노인(?)으로 우대돼 무료입장 혜택을 받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일행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 경업대와 신선대를 거쳐 문장대에 올랐고 이곳에서 추억만들기 기념촬영을 한 후 하산을 시작, 5시간의 산행을 무사히 마쳤다.

베이스캠프로 예약한 민속주점에 오후 6시 도착한 일행은 이곳에서 단합회를 가졌다.

서울과 부산의 동문들이 한사람씩 섞여 앉아 술잔을 나누고 목이 터져라 "후라, 경고!"를 삼창한 후 엄숙히 교가를 제창했다. 동문들은 오후 9시 악수세례를 나누며 헤어졌다.

돼지 잡고 불꽃잔치 ... "약전"결의

제17차 산행(98년 8월)

이번 산행은 가족 동반 여름 휴가를 겸한 것으로, 용평콘도와 삼봉약수에 가족베이스캠프를 마련했다.

1일째 대철버스에 몸을 싣고 남한의 마지막 비경 동강~영월의 단종묘소 장릉 참배~정선 아우라지~오대천~용평콘도 도착. 서울 회원들과 합쳐 모두 60명 대군사.

2일째 22명의 산행대원이 대관령에서 기념 촬영하고 출발, 선자령(1,157m)~삼양목장~효자~곤신봉(1,127m)~매봉(1,173m)에 닿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서영대 동문(28회)의 부인(박수연)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와 서 동문, 김봉호(19회), 장병호 동문(20회) 등이 소항봉산과 삼양목장 일대를 헤매며

이명규 동문 뜨거운 성원
시련 극복의 활력소

길 잃은 여대원 극적 구조

가족동반 휴가캠프 설치
부산·서울서 60명 집결

찾았다.

서 동문의 아내를 부르는 울음섞인 목소리가 애처롭다. 본대는 계속 운행. 노인봉 산장 가까이 가니 황병산 쪽에서 "아리아리"하는 에코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대원 3명이 긴급 출동, 30분 후 박 여사를 무사히 구출(?)했다.

노인봉 산장~노인봉(1,338m)~진고개 도착하니 비가 내린다.

3일째 빗속에 동대산(1,434m)까지 급경사길을 2시간만에 오른다.

시아블량으로 여사 박문수가 감탄한 '조선팔도 최고 명당' 상원사 적멸보궁을 놓쳤다.

이번에 처음 참가한 이철근 장병호 동문(이상 20회)이 빗속에서 산세도 구경 못하고 고생만 한다고 투덜거린다.

산행목적지 구룡령까지는 운행이 늦어 두로봉(1,432m)에서 하산. (두로봉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분수령. 북한강은 두로봉을 출발하여 내린천 소양강 거쳐 북한강으로, 남한강은 오대천 동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대간상의 중요한 지점).

오늘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 이명규 동문(24회·홍천경찰서장)의

백두대간 종주기

구덕산우회

> 5 <

대관령~한계령

오 기 현

제20회·구덕산우회 산행대장



구덕산우회 회원들이 대관령 국사성황당 기념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선으로 삼봉약수 휴양림에서 돼지 한 마리 곁들인 캠프파이어 잔치.

4일째 준비된 차편으로 내린천~한계령~필계약수~구룡령~강원 내륙 비경 구경 후 삼봉약수에서 하루 더 묵다. 캐나다에 이민간 석용태 동문(19회)도 합류, 옛정 솟다.

5일째 서울팀은 승용차편으로, 부산팀은 대철버스로 각각 귀가. 부산팀은 덕구온천에 들러 온천욕으로 피로 씻다.

제18차 산행(98년 9월)

1일째 부산에서 야간버스 이용, 새벽 6시경 강릉에 도착. 아침식사 후 북대사~주목 군락지~두로봉에. 저번 산행시 비가 와서 조망하지 못한 사방 경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북쪽으로는 남한대간의 마지막인 설악산이,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오대산의 상왕봉 비로봉(1,563m)

호령봉이 병풍같다. 신배령 웅복산(1,360m) 약수산(1,306m)을 지나 구룡령에 도착해 야영에 돌입. 잠을 청하는데 이명규 동문이 술과 안주 갖고 위문.

2일째 구룡령 야영지를 출발, 갈전곡봉(1,204m)~968봉 안부(중식)~조침령까지. 길이 멀어 필자와 남기태 동문(31회)이 먼저 출발, 야영준비를 하기로 하고 후미조는 이 회장과 이중태 동문(28회)에게 맡기다.

쇠나드리 안부를 지나 조침령에 도착하니 어둠이 깔린다. 9시경 능선에서 후미조의 헤드 램프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두 늦은 식사.

3일째 조침령을 출발, 943봉에 오르니

점봉산과 설악의 대청봉이 바로 눈앞에 있다. 단목령에 도착하여 대간 옆으로 계곡이 흘러 중식. 이때 이명규 동문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고기와 과일 등 먹거리를 한 짐 지고 출현. 감사와 감격의 박수갈채. 중식 후 서울의 이충덕 동문(23회)이 업무 때문에 이명규 동문과 오색으로 하산. 오늘의 야영지인 점봉산 밑 홍포수막터에 도착하니 비가 내린다. 텐트 속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 신난다.

4일째 빗속에서 촬영하고 점봉산(1,424m)에 오르니 운무천지. 설악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망대암산(1,236m)~1157봉~1시간여 암릉 돌파(남설악과 내설악의 서북능 조망)~필계령~한계령 도착하니 오후 2시경. 이명규 동문이 준비해준 차량편으로 홍천서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저녁식사 함께 한 후 원주에서 비행기편으로 부산에. (계속)

30만원대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우리집 무선정보기 방패



뛰는 도둑 위에
나는 방패가 있다!!

설치비? NO! 월회비? NO!

대표 손 병 우(22회)

※ 리콜 서비스 실시

(주)원테크 전화문의
TEL : 051)851-4213~6, 4737
FAX : 051)851-4736

※ 동문특가 : 99년말까지 15% 할인

긴급상황시 리모콘 버튼만 누르면 녹음된
긴급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기능

바로콜기능 112나 119로



노약자 임산부 금연방/상가

외부에서 침입시 입력된 지정번호 5개로
즉시 전화를 걸어 알려주며
강력한 경보사이렌이 작동됨.

외부침입시



주택 사무실 APT

방패의
주요기능

- 5개의 비상전화번호 설정 : 핸드폰, 파출소, 이웃집 등
- 긴급상황시 바로콜 : 미리 세팅한 번호(119, 112)로 바로 연결
- 음성통보안내 : 외부 침입시 음성안내로 상황파악, 쌍방향통화, 내부감청, 경보해제/진입, 주소확인 기능
- 경보해제/진입 원격제어 기능 : 외부에서 전화로 경보해제/진입
- 리모콘 : 몸에 지니며, 긴급상황시 (one touch) 간편조작 기능